

2014년 4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

아이를 벌줄 때
子供を罰するとき

인간이
人間が

아무리 모양을 잡아준다고 해도
いくら、形を整えてくれても

결국 나무는 타고난 방식으로 자란다.
結局、木は生まれつきの方法で育つ

어린 아이를 벌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라.
子供を罰するときにも、これを覚えておきなさい

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이는
天性が強いから子供は

결국 그 잠재력대로 자란다.
結局、その潜在力で育つ

- 레프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중에서 -
- レフ・トルストイの〈生きていく日々のための勉強〉より -

* 아이에게
* 子供に

칭찬도 필요하지만
称賛も必要だが

벌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罰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もあります

이 '때'를 놓치면 모양이 틀어지거나
この'時'を、逃せば形が狂ったり

가야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行くべき道と方向を失うようになります

타고난 천성과 잠재력도 '때'를 놓치면
卓越した天声と潜在力も'時'を逃せば

묻히게 됩니다.
埋もれてしまいます

벌주다 (罰—)
[타동사] 罰する; 罰を与える.
모양 (模様)
[명사]
模様; 様子.
(형태·모습) 形; かた; 格好; なり; さま; よう.
[의존명사] ('모양으로' の形で, または '이다' · '같다' と共に用...
잡다

[타동사]

取る.

(손으로) (手に)握る; つかむ.

(권리 따위를) (權利などを)握る; つかむ.

어린 아이를 子供を

천성 (天性)

[명사] 天性; 生まれつき.

살아가다

[자동사] [타동사]

(생존) 生きて行く; 生きる; 生き抜く; 生き続く.

(생계·살림) 暮らして行く; 暮らす; 世を渡る; 世渡り...

날

[명사]

日.

(하루) 日にち.

칭찬 (稱讚)

[명사] 称赞[賞賛](しょうさん).

놓치다

[타동사]

(기회·범인·손님 따위를) 逃がす; 逃す; 逸する.

(버스 따위를) 乗りそこなう; 乗り外す; 乗り遅れる.

(보는 것을) 見失う; 見逃す; 見過ごす[노인어].

틀어지다

[자동사]

(まっすぐになるべき列などが) 横に曲がる; 反れる.

(繩のように) よじれる; 縊れる; ねじれる; ねじりまげられる.

仲違いになる; 間隙を生ずる.

묻히다

[타동사] ['묻다' の使役] 付ける; くっ付ける.

[자동사]

['묻다' の受け身]

埋められる; 埋まる; うずもれる; 葬られる; 埋かる[속어]...

2014년 4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あなたがまず近づく!

진정한 친구란
本当の友人とは

슬픈 일이 있을 때보다
悲しいことがあるときより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친구야.
いいことがあるとき、本当に祝福してあげるのが友人だ

불행한 일 앞에서는 대단한 우정이 아니어도
不幸なことを前にしても、素晴らしい友情じゃなくても

함께 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
共にできれば、いいことがあるときは心の

한구석에 질투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片隅に嫉妬の感情が生まれるからだ

지금 네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누구니?
今あなたが本当の友人は誰と誰?

그 이름을 한 번 적어봐. 없다면
その名前を一度考えてみて、いないなら

내가 먼저 다가가!
あなたがまず近づく!

- 김재용의 《엄마의 주례사》 중에서 -
- キム・ジェヨンの〈母の祝辞〉より -

* 좋은 친구 얻기.
* いい友人を得ること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本当に簡単ではないことです

친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友人が近づくのを待たず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私がまず近づくことが、正しい順序です

다가갈 때는 '어두운 주파수'를 말끔히 걷어내고
近づくときは、'くらい周波数'をきれいに取り除いて

유쾌한 주파수, 따뜻한 가슴, 웃는 얼굴로
愉快的な周波数、温かい周波数、笑う周波数で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近づ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して相手も

마음을 엽니다.
心を開きます

대단하다

[형용사]

非常に…だ.

(심하다) 甚だしい.

(굉장함) 大変だ; すばらしい; すさまじい; すごい.

部屋の片隅に置く 발음 재생 (표제어: 한구석)

방 한구석에 놓다

질투 (嫉妬·嫉妒)

[명사] 嫉妬; ねたみ; 焼き餅; ジェラシー; 怏気; そねみ.

어둡다

[형용사]

暗い.

(光·色などが) 明るくない.

(零囲気·表情·性格などが) 沈うつでは...

주파수 (周波數)

[명사] [물리] 周波数.

말끔히

[부사] きれいに; さっぱりと; すっきり; すっかり.

膜を取りはらう 발음 재생 (표제어: 더껍이)

더껍이를 걷어내다

2014년 4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

'12세 소녀의 녹색뇌'
'12歳少女のグリーン脳'

이제 십대의 뇌가
今の10代の脳が

여전히 진행 중인 거대한 건강 프로젝트라는
今なお進行中である、巨大健康プロジェクトという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신경화학물질이 십대의
事実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神経化学物質が10代の

머리를 씻어 내리면, 새로운 색깔, 새로운 모습,
頭を清めれば、新し色、新しい姿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십대의 뇌는
人生の新しい機会が生じる。10代の脳は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며, 그들의 뇌는
加工されていない原石で、彼らの脳は

여전히 미래를 만들어 가고
今なお未来を作っている

있는 중이다.
途中だ

- 바버라 스트로치의 《십대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중에서 -
- バルバラ・ストロツィの〈10代たちの脳で何が広がっているのか?〉より -

* "그 연세에
* "その年齢で

이런 '녹색뇌' 사진은 처음입니다."
こんな'グリーン脳'写真は初めてです

"10년 전 12세 소녀의 뇌에서 이런 뇌 사진이
"10年前12歳少女の脳でこのような脳の写真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의 녹색뇌 사진을 보고
出たことがありました。"私のグリーン脳写真を見て

병원 관계자들도 놀랐지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病院関係者も驚いたが、私もとても驚きました

62세 노인의 뇌가 12세 소녀의 뇌색깔과 똑같다니요.
62歳の老人になって、12歳少女の緑色と同じでした

선물과도 같고, 기적과도 같은 저의 뇌사진을 접하고 나서
贈りものようで、奇跡のような私の脳写真に接して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산속 웅달샘이
新しい夢を見始めました。深い山中の小さな泉が

20140409.txt

'녹색뇌'를 만드는 치유공간이 되게 하자!
'グリーン脳'を作る治癒空間になるようにしよう!

많은 사람들이 '12세 소녀의 녹색뇌'로
たくさんの人々が'12歳少女のグリーン脳'で

젊게 살아가도록 만들자!
若く生きるようにしよう!

씻다

[타동사]

(물로) (水などで) 洗う; 流す.

(물기를) ぬぐう; 拭く.

(오욕을) すすぐ; そそぐ; 清める.

여전히

[부사] 相変わらず; 依然として; 今もなお.

벌어지다

[자동사]

(갈라지다) 透き間ができる.

(관계가) 仲たがいになる.

(열리다) 開く; 広がる.

2014년 4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

잘 지내니? 잘 지내길 바란다
元氣にしてる?元氣にしてるのを祈ってる

잘 지내니?
元氣にしてる?

난 너의 기억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어.
私はあなたの記憶をそっくりそのまま持っている

보고 싶고 궁금해. 살아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会いたくて気になる。生きている間、一回でも

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앞에
あなたにあえたらうれしい。しかし、私の前に

안 나타나도 좋아.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現れないでもいい。ちゃんと生きていれば、それで

돼. 그때 너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よい。その時、あなたを苦労させたことが

다 사라지고 행복해졌기를
すべて消えて、幸せになるのを

바란다.
のぞむ

- 송정연의 《당신이 좋아진 날》 중에서 -
- ソン・ジョンヨンの〈あなたが好きなる日〉より -

* 불현듯
* 突然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安否が気になる人がいます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今ちゃんと過ごしているのか、どこか痛くないか

밥은 먹고 사는지, 마음이 아련해 집니다.
ご飯を食べているのか、心が朧気になります

불현듯 생각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突然思い出すことは、その人が今も

내 가슴 속 난로의 불씨로 남아 있다는
私の心の中で暖炉の火種として残っている

뜻입니다. 아직도 남은 그 불씨가
という意味です。今も残っているその火種が

나를 기쁘게도 하고
私を喜ばせ

아프게도 합니다.
辛くさせます

고스란히

[부사] そっくりみんな; 余すところなく; そっくりそのまま; 一つ残...

불현듯이

[부사] にわかに; いきなり; 突然.

아련하다

[형용사]

おぼろだ; かすかだ.

(기억 등이) はっきりしない; 記憶がうすい.

(눈·귀 등이) ぼんやりとしている; かすかだ; ほのかだ.

난로 (暖爐·煖爐)

[명사]

暖炉; ストーブ.

(→난롯불)

불씨

[명사]

火種.

(불덩이) 種火.

(원인) 種; きっかけ.

2014년 4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

어! 내가 왜 저기 앉아 있지?
あ! 私がなぜそこに座っている?

길을 가다가
道を行けば

작은 돌맹이 하나 걸어찼다.
小さ石ころひとつ蹴った

저만치 주저앉아 야속한 눈으로 쳐다본다.
そこらへんに座り込んで、無情な目で見上げる

어!
あ!

내가 왜 저기 앉아 있지?
私がなぜここにすわっている?

수많은 발길에 채이어 멍들고 피 흘린 것도
数多くの行き来でつまずいて、傷ついて、血を流したことも

모자라 내가 나에게까지 걸어차이다니.
たりず、私は私にまで蹴られるなんて

- 차신재의 《시간의 물결》 중에서 -
- チャ・シンジェの〈時間の波〉より -

* 이따금 나도 모르게
* 時々、私も知らず

내가 나를 걸어차 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私が私をけてしまう瞬間があります

그리고는 스스로 "어! 내가 왜 저기 앉아 있지?"
そして自分で"あ! 私がなぜそこに座っている?"

되물게 됩니다. 나에게 걸어차인 또 다른 나.
聞き返すようになります。私に蹴られたもう一人の私

내가 다가가 거뒀들여 품어야 합니다.
私が近づいて取り込んで抱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가 먼저 품어야 다른 사람도
私がまず抱いて、ほかの人も

나를 품어줍니다.
私を抱いてくれます

주저앉다
[자동사]
座り込む.
(物の底が)落ち込む; 崩れる.
(仕事を)途中でなげうつ; へこたれる; へたばる.
ページ(1)

쳐다보다

[타동사] (치어다보다의 준말) 見あげる; 見(つめ)る; 仰向く; 仰ぎ見(...)

발길

[명사]

足.

(기세) 足でけったり, または歩く足の力[勢い]; ...

(왕래) 行き来; 往来.

명들다

[자동사]

心を痛める; 傷つく.

故障が生じる; さしさわる.

모자라다

[자동사] [형용사]

足りない.

(부족함) 不足する; 乏しい.

(수량에 못 미침) (数量·数值に) 及ばない; 不足(...)

걸어차다

[타동사]

(足で) 蹴る; 蹴飛ばす.

はねつける; 退ける; 見捨てる.

물결

[명사] 波; 波濤; 波浪; 流れ. (=수파(水波))

이따금

[부사] 時々; 時たま; 時折; 折折; ちょいちょい; よ...

되묻다

[타동사]

問い返す; 聞き直す; 聞き返す.

反問する.

거둬들이다

[타동사] 거두어들이다의 준말

거두어들이다

[타동사]

(農作物を) 取り入れる.

回収する; 取り込む.

取り消す. [준말] 거둬들이다.

2014년 4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한층섭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ン・チョンソプ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려갈 때 보았네
降りるとき見た

내려갈 때 보았네
降りるとき見た

올라갈 때 보지 못한
登るときに見えなかった

그 꽃
その花

- 고은의 시 〈그 꽃〉에서 -
- コウンの詩〈その花〉より -

*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 我々は、人生を生きていきながら時には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人生の重要なことが、何なのかわからないのか

설령 안다고 해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仮にわかったとしても、無視してしまう場合があります

그 누구도 보이지 않거나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その誰にも見えなかったり、見ることも無いようにします

인생은 내려갈 때 보다 올라갈 때 '꽃'을 보아야 합니다.
人生は降りるときより、上るときに'花'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꽃 속에는 이웃 사랑, 지극히 작은 자, 소외당한 자,
その花の中には、近隣の愛、非常に小さい物、疎外された物

상처를 입은 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傷を負うもの、不健康な人がいます

지극히
[부사] 至極; 極めて; この上なく; 限りなく; 非常に.
소외 (疎外)
[명사] 疎外; うとんじてよそよそしくすること. (=소원(疎遠)·소척(疏斥))